

한형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무아(無我)’의 가르침을 현실에 적용시키기가 쉽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실현한다고들 하지만 무아의 개념은 여전히 막연하다. 매일 같이 <금강경>을 독송하지만 심하지 않는 돌을 입안에서 우물거려 삼키고 있지는 않지 않자들은 늘 자문하고 있다. 한형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6월 15일 한국전통불교문화박물관에서 조계종 중무원조합, 불교인재원, 대한불교청년회가 주최한 초청 특강에서 “무아로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주제로 강의했다. 한 교수는 “불교는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불교의 핵심 하나만 알면 불교를 어렵지 않게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마추어 불교학자라 지칭한 한형조 교수는 이날 학자로서 점수(漸修)의 입장에서 불교의 핵심을 정리했다. 한형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의 저서로는 <주희에서 정약응으로> (무문관에서 혹은 너는 누구냐) <왜 동양철학인가> (조선유학의 거장들) <금강경 강의 붓다의 치명적 농담, 허접한 꽃들의 축제> 등이 있다.

정리=이상연 기자, 사진=박재환 기자



禪을 제대로 알고 싶은가? ... 책부터 읽어라

불교의 핵심은 하나로 통한다

불교를 알기 위해서 팔만대장경을 다 뒤집어 볼 필요 없습니다.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이 안에 핵심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 핵심에만 다가가면 됩니다. 모든 핵심이 <금강경> 사구계 안에 있습니다.

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即見如來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가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 아닌 것으로 본다면 곧 여래를 보리라”는 뜻입니다. 결국 “내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그것들은 객관적 실체가 아니다. 그것들은 네 사적 의지와 관심의 투영. 다시 말해 너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 사대를 선명히 자각할 때, 그때 너는 붓다와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전을 되새김질하는 소처럼 보라

경전을 대할 때는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소처럼 대하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고전이나 경전을 소설 읽듯 편하게 읽기를 원하지만 고전을 근대 소설 대하듯 하면 안 됩니다. 불교 경전이나 유교 경전은 물론 동서양의 위대한 고전은 모두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위대한 고전은 압축된 암호들이기 때문에 읽는다고 술술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동시에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석을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중을 위한 경전이 필요합니다. <금강경>은 불경 중 가장 심오한 경전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수많은

불자들이 <금강경>을 독송하거나 암송하고 있지만 문자와 내용사이에 괴리감이 커 그 뜻을 구체적인 체험과 연계시켜서 생활화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금강경> 뿐만 아니라 초기불교, 선, 화엄 등 불교 전체가 난해한 언설로 깔려 있으니 그 위용 앞에서 어지러운 것은 당연한 것일니다.

신번어와 고전언어의 혼재가 어려운 불교 만들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가 원효와 지눌이 쓰던 한자가 아니라 19세기 중반 일본이 만든 번안어들과 고전이 섞이면서 의미가 완전히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산스크리트어를 통해서 불교를 접하던 것보다 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외국어로 다가온다면 편할 것을 고전언어와 신번어와 섞여 있어 불교가 어렵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고전언어와 신번어를 구분해주는 사전조차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 언어를 개량해야 합니다.

“사무치는 불교가 그림자”

최근 불교학회를 보면 3인의 동상이몽이 생각납니다. 전문가들은 제리의 어법과 담론을 축으로 토론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너무 세부적으로 다루다 보니, 현실 생활과 지식사이에 괴리만 커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식은 늘어나고 있지만 세상은 더욱 알 수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교도 같은 정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님들은 그것들이 최고의 깨달음인 화두, 간화와 무슨 관계가 있을지는 생각을 합니다. 잠석한 일반 대중들은 전문가의 이야기도 어렵고, 화두는 너무 혼란하

는 생각을 하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 불교를 내 삶에 어떻게 접목 시켜야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시대 새 불교는 지루하고 혼란한 불교에서 벗어나 소통의 갈망입니다. 진정한 불교가 그림자입니다. 진정한 불교란 나의 삶과 체험의 지평에 절실하게 다가오는 불교 즉 사무치는 불교를 뜻합니다.

화두 접근법 달리 해야

화두는 집결체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화두를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불

가의미집결체가 돼 불교의 핵심코드가 되어야 합니다. 해독이 제대로 되어 화두에 비로소 적정하게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고 집중하는 것과 이해 없이 집중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로 다른 시각 그리고 자아라는 감각

길주 청원유신 선사가 강단에 올랐습니다. (靑原惟信禪師上堂) 노승이 삼십년 참선에 이르기 전, 산을 보니 산이었고 물을 보니 물이었다. (老僧三十年前未參禪時 見山是山見水是水) 나중에 선지식을 친견한 이후 불문에 들어서고 보

니 산이 아니었고 물을 보니 물이 곧 아니었다. (及至後來親見 知識有箇入處 見山不是山 見水不是水) 그런데 지금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 보니, 여전히 산을 보니 그대로 산이었고(而今得箇休歇處 依然見山是山 見水是水) 산은 그대로 산이었다. 대중들이여 이 세 가지 견해가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大衆道三般見解是同是別) 선비나 스님 중에 나서는 자가 있다면 나의 실재와 깨달음과 마주하고 있다고 하겠다. (有人纔索得出 許汝親見老僧箇) <속전등록>

불교의 관건은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라는 두 번째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근거는 두 번째를 거치지 않고서는 세 번째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같은 사태도 바라보는 화자에 따라서 다르게 봅니다. 당연히 나의 시선과도 다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자아의 감각 즉 자아의 판단이 이룬 세상입니다. 모든 판단은 자기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끝없이 자기 식으로 왜곡하고 정당화하기 때문에 객관화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지 세계는 자기가 보는 세계에 갇혀있으니 우리는 실제 사물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나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며, 나를 찬양 혹은 모욕했고, 내가 좋아하는 혹은 싫어하는 스타일에, 내가 존경하는 부와 권력 혹은 경멸하는 찌질한 인생에 무엇보다 내게 득을 줄 사람, 혹은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사람이라고 바라봅니다.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물의 실재보다 자신의 의지와 관심 편견 수용으로 세상을 봅니다. 사물을 보기보다는 자신의 그림자를 보는 것이죠. <금강경>은 우리가 보는 세상은 우리의 자아를 투영하는 이미지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크리슈나 무르티는 “나는 분열과 갈등으로 추악하고 잔인해진 이 괴한 사회의 일원으로 그것을 만드는데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 생각의 감각에 갇혀 사는 삶은 도피의 일상이 되고 맙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 다른 사람과의 의미있는 만남을 놓치고, 자연과의 생생한 접촉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무의미가 생기고 타자를 도구화하는 정도가 넘어 자기 자신을 소외시키기 까지 하는 것입니다.

불교만이 진리 아니다 불교의 다양한 유파 사상이 결국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불교의 다양한 이야기와 또 다른 깨달음이 수많은 주장과 의견들이 불교의 깊은 뜻입니다. 서로 다른 교설 같지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일상적 지식, 서양철학, 소설 모두 불교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불교만의 진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진리는 오래된 것이고, 길은 다만 발견될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붓다와 에크하르트, 그리고 나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가르친다. 그러나 에크하르트가 기독교 신화의 굴레를 쓰고 그렇게 하는 반면, 불교에서는 동일한 사상이 그런 신화에 의해 위축되지 않고 나타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경허선사도 “그 뜻을 얻으면 거리의 잡담도 다 진리의 가르침이요, 말에서 해매면 웅공의 보배꽃간도 한바탕 잠포대일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불교의 핵심 진실에 다가가지 못하면 팔만사천법문도 다 헛된 것이 됩니다.

무아의 연습

자아로 인해서 절절한 왜곡된 견해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하는 것이 곧 무아의 훈련입니다. 자기 밖에서 세상을 보는 연습해야 합니다. 아내의 젖은 손을 보고도 집안 살림을 어떻게 놀려가고 있는지, 아이는 잘 가르치고 있는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고생하는 줄을 아는 것이 무아의 훈련입니다. 남편의 비뚤을 보고 더럽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넌 왜 그렇게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라는 시각, 사물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 역사사지로 회화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곡된 견해가 ‘나’ 를 감옥에 가둬 자기 밖에서 세상을 봄이 곧 무아

교의 돌파구는 스님, 학자, 일반 대중들을 위한 제3의 길이나 중도에서 해결책이 필요하다. 삶과 체험과 접맥해야 합니다. 화두를 언어로 표현하고,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쓰고 있는 담론을 다시보고 다시 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학자들은 논서에서 어떤 주장이 있다가 아니라 일련의 내용들이 지금 우리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나하는 것으로 언어를 살리되 언어를 바꾸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학을 다시 불러야 합니다. 책을 읽어야 하고, 다시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화두는 의미절개로 해석돼야 합니다. 불교의 진실을 담고 있는 구절로 화두자체

니 산이 아니었고 물을 보니 물이 곧 아니었다. (及至後來親見 知識有箇入處 見山不是山 見水不是水) 그런데 지금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 보니, 여전히 산을 보니 그대로 산이었고(而今得箇休歇處 依然見山是山 見水是水) 산은 그대로 산이었다. 대중들이여 이 세 가지 견해가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大衆道三般見解是同是別) 선비나 스님 중에 나서는 자가 있다면 나의 실재와 깨달음과 마주하고 있다고 하겠다. (有人纔索得出 許汝親見老僧箇) <속전등록>

불교의 관건은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라는 두 번째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근거는 두 번째를 거치지 않고서는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햇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창에 휘나햇 온열방법 을 검색하세요

2011년형 여름 신상품 특별 할인 판매



휘나햇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리해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 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 배출되기때문에몸속 (체온) 상승되며 신체의상태가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체질에 따라 면역력이8-10강해지는 휘나햇 온열경영은 3-4년 전 하루 200-250명 무료 체험을통하여 많은 체험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휘나햇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특제 10-096707 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제 및 그 제조방법)특수제작한수퍼블랙드스크 B.C.P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체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햇 반신욕기는특별할인된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보급될것입니다. (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입사원모집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당중 위기 식물 177종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납성 성기 등에 증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검색용 지음 | 값 5,000원

문의: 070-7804-5358

계좌: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강봉대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속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릎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웃나무 진액 참웃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웃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웃에도 고품질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호 주산지를 찾아 해매던 사람이 지하 250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웃을 만들었습니다.

▶웃에 대한 솔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웃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착한 참웃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웃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